

욥기

모임 20: 엘리후 담화, 욥기 32-37장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20과, 엘리후 담화, 욥기 32-37장입니다.

엘리후 담화 소개(욥기 32-37장) [00:24-2:02]

이제 우리는 새로 온 엘리후에 도착합니다. 그는 책의 해석자들에 의해 침입자로 여겨져 왔으며, 책의 흐름에 대략적으로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침입자로 볼 수 있지만 그의 역할은 책에서 매우 중요하고 책의 논리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조차 흥미롭다. 다른 친구들의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분명하고 의미심장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모퉁이에 성을 쌓고 하나님을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는 정말로 신정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엘리후는 책에 나오는 다른

어떤 인간 연사보다 더 옳지 만 여전히 옳지 않습니다. 그는 책이 우리가 결국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만으로 현명한 현인 같은 또래들을 존경해 온 어떤 의미의 젊은이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할 말이 너무 많아져서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후의 역할: 욥의 독선 폭로 [2:02-2:43]

그래서 32-37장에서 엘리후의 담론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책에서 욥의 의로운 외관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과 관련된 구체적인 비난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이 잘못했을 수도 있는 일들을 제안할 수 있는 곳에서 욥은 물론 이전 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맹세했습니다. 엘리후는 특정한 비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욥의 독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후와 욥의 결백 맹세 [2:43-3:53]

그건 그렇고, 너무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욥의 무죄 맹세 이후 서스펜스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욥은 무죄를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결투를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신과의 대결은 매우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고, 서술자가 또 다른 등장인물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긴장의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야훼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엘리후의 장황한 연설을 듣게 된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종류의 전략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광고입니까?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이 실제로 파괴적이라고 느꼈지만 이것은 모두 책 편집자의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여러분이 약간의 고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했습니다.

도전자와 평행을 이루는 엘리후 [3:53-4:47]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 엘리후의 역할은 어떤 면에서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 도전자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욥의 의로움을 보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Challenger는 욥의 의로움을 단순히 번영의 혜택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엘리후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욥의 의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이 독선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도전자는 욥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고 엘리후는 실제로 욥의 의로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포함하여 책에서 그렇게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엘리후가 보복 원칙을 예방적 수단으로 재정비함 [4:47-6:11]

엘리후가 악의 혐의로부터 하나님을 변호하는 동안에도 34장에서 그것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36:3과 37:23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그는 34장 11절과 36장 11절과 12장과 같은 보복 원칙의 대략적인 패러다임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보복 원칙은 사실입니다. 이제 삼각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엘리후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다가올 일을 예상하기 위해 예방하는 과거에 한 일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보복 원칙을 재정의합니다. 그는 35:3에 있는 욥의 동기에 대해 도전자와 동의하며 그의 주요 요점은 그가 욥을 독선의 죄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욥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3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독선으로 고발하다 [6:11-8:04]

그의 주장은 자신을 변호하는 욥의 독선이 그에 대한 징벌적 행동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엘리후 변종은 공격적인 행동을 끌어내는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판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 배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히기 위해 그를 미끼로 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 인간의 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위대한 공생뿐만 아니라 의에 중점을 둡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욥의 독선적인 태도를 정죄하는 데 명백히 옳습니다. 우리는 욥의 말과 하나님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을 변호하려는 욥의 태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욥과 그의 생각에 대한 정당한 비판입니다. 엘리후는 그런 것들을 꺼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동기에 대해 틀렸습니다. 엘리후는 공생의 위대한 태도를 경멸하고 욥이 여전히 이익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욥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번영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아님을 충분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후는 욥에 대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엘리후의 변호 [8:04-8:41]

엘리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이 없으며 그의 성품의 다른 모든 측면과 함께 그의 공의는 공격할 수 없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에 대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의 통치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발적이지 않으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행동이 우리의 평가나 시정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후가 옳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매우 적절하고 고상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엘리후의 결함 있는 신정론 [8:41-10:09]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정책의 본질에 대해서도 틀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적절한 신정론을 가지고 있으며 신정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정론을 시도하면서 자신이 옳을 고발한 동일한 잘못에 희생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엘리후는 공의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가져오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여전히 삼각형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용도에 맞게 재구성하려고 시도하지만 여전히 삼각형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의가 시스템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전히 신정론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관성이 정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간단한 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보다 조금 더 복잡한 방정식이고 그의 친구들이 보복 원칙을 재정의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간단한 정의 방정식이 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는 틀렸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정하기 위해 야훼의 말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옳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20과, 엘리후의 설교, 옳기 32-37장입니다. [10:09]